

월간규문 싱그러운 5월호 (5월 31일)

QMI

2014.5

공부한다면 이들처럼
붓다와 그의 제자들

時想 5월, 환대를 생각함

도도 시즌 1: 에세이 오브 에세이
고통에 대한 증정 / 이현옥

신자의 that's IT

London Grammar의 〈If you wait〉
Owlle의 〈France〉

노심 읽는 숙제

무라카미 하루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변개주천 / 홍대요정의 요즘음악

이달의 선물

special thanks to 쿤우!!

신자의 that's IT

London Grammar의 〈If you wait〉, Owlle의 〈France〉

일렉트로 뮤직의 신에 런던그래머와 오위. 런던 그래머는 총 3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컬: Hannah Reid, 기타: Dan Rothman, 키보드: Dominic 'Dot' Major) 2012년 12월 유튜브에 hey now를 올리면서 정식 데뷔했다. 소개하는 앨범은 2013년 9월에 발매된 첫 정규 앨범 〈If you wait〉. 귀에 제일 먼저 꽂히는 건 무엇보다 보컬 한나 레이드의 목소리다.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몽롱하고 중성적인 목소리. 이들이 하는 음악을 트립 팝이라고 한다. 이 장르의 특징은 음습한 분위기와 여성 보컬에 있는데 런던 그래머는 이 조건에 부합한다 하겠다. 그리고 조금 다른 매력을 풍기는 오위. 그녀의 본명은 France Picoulet. 앨범 이름을 오위(owlle)로 지은 건 자신이 밤에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owl에 le를 붙여 붙어식으로 여성형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 안드로메다와 접속하는 듯한 dream-pop. 몽롱한 여름밤을 상상하며, 들어보시라!



London Grammar



Owlle

번개추천 흥대요정의 요즘음악

흥대요정이 요즘 꼭 빠진 음악은 라틴 음악. 브라질 뮤지션 Ivan Lins와 Celso Viáfora가 함께한 Nossas Cancoes 라는 앨범이 그것. 포르투갈어로 된 가사가 Ivan Lins의 감미로운 저음에 실려 독특한 매력을 자아낸다. 남미음악의 전형적인 타악기 리듬을 타노라면 당신은 어느샌가 남미의 노을진 해변가를 거닐고 있으리라.

특히 10번 트랙의 Veneziana를 강추!

문정: 작곡가를 꿈꾸는 풋풋한 흥대 요정, 그리고 규문 수강생 ^^



노심 읽는 수경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 무라카미 하루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이하 <다자키>)가 국내에 출간된 그 주에 서점에서 책을 구입했고 아마 그날 책을 다 읽었을 거다. 하루키를 읽는 데에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니깐.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그가 발표한 소설을 전부 읽었다. 최소한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그런데 이상하지, 스스로 하루키를 좋아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누군가 묻는다면 차라리 논픽션 <언더그라운드>를 거론할 것 같고. ... 그럼 나, 하루키를 왜 읽는 걸까?

학창시절 어느 날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친구 그룹으로부터 '아웃팅' 당한 주인공 다자키가 삼십대가 된 지금 비로소 그들을 차례로 만나 그때 왜 그랬는지 듣게 된다는 것이 <다자키>의 대략적 내용. 말하자면 서른이 지나 소위 '자아 찾기'란 걸 할 마음이 생긴 '키덜트' 이야기인 셈이다. 흔히 거론되는 하루키의 자기 복제니, 동어반복이니, 사소설이니 하는 말은 말기로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루키를 읽고 있다면, 읽게 되는 바로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게 보다 생산적인 일이니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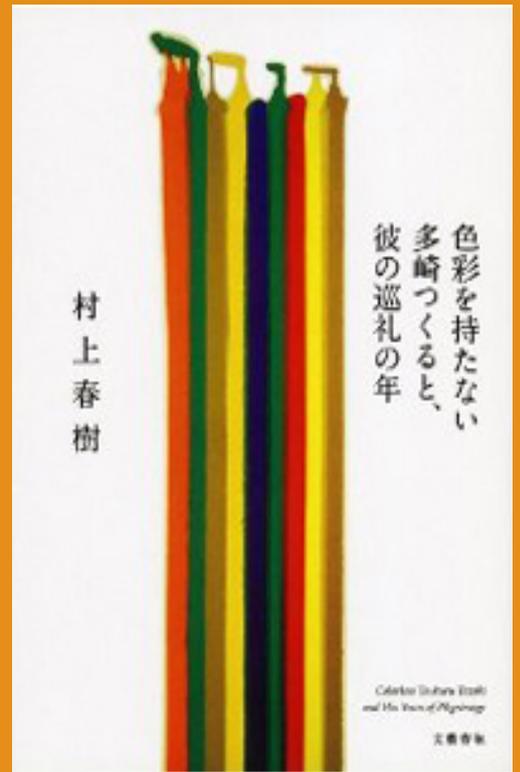
일단 나는 하루키가 하나의 작은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쓰는 문장에서 감탄한다. 예컨대

“고마워.” 그리고 그녀는 페이지 끝에 작은 글씨로 각주를 다는 듯한 느낌으로 덧붙였다. “언젠가 자기랑 만날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페이지 끝에 작은 글씨로 각주를 다는 듯한”이라는 구절을 읽는 동안 텐션이 올라가는 걸 느낀다. 적재적소에 배치된 산뜻하고 신선한 설명은 순수하게 읽는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이야기를 축축 처지게 하는 아포리즘들을 상쇄할 만큼 강력하게, 군데군데 빛나는 문장들이 상황과 분위기를 확 살려놓는다.

대학수영장에서 하이다 뒤에서 헤엄치며 늘 그런 발바닥을 보았다. 밤길을 운전하는 사람이 앞차 꼬리등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두 번째로, 하나의 작은 세계를 생생하게 형상화해내는 재주. 예컨대 리스트가 작곡한 소품 <르 말 뒤 페이>, 주인공이 온 신경을 집중해 설계하는 철도역, 요즘 데이트하는 그녀와 함께 가는 레스토랑 등등이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작품 속의 세계를 고치처럼 감싼다. 이를 통해 형성되는 분위기, 확실히



‘하루키 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다자키>를 비롯, 하루키의 어떤 작품에도 있다. 그의 작품에 대해 진지하게 논하려 들 때 궁색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일지 모르겠다. 실제로 <다자키>가 내게 남긴 인상은 작가의 주제의식이나 문학적 사유의 깊이에 기인한 것이기보다는 그 분위기에 있었다.

「르 말 뒤 페이」. 조용한 멜랑콜리가 어린 그 곡은 그의 마음을 감싼 형체 없는 슬픔에 조금씩 윤곽을 그려준다. 마치 허공에 잠겨든 투명한 생명체의 표면에 수없이 많은 가느다란 꽃가루가 달라붙어 전체 형상을 눈앞에 조용히 떠오르게 하는 것처럼.

하루키는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를 취하게 한 뒤 이상하고 자그마한 이야기들을 잔뜩 들려준다. 묵직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심포니가 아니라 소품을 끝내주게 뽑아내는 기예.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루키 월드에서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즐거움이다.

십여 년 전 어느 날 하루키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신간을 선물하면서 왜 좋아하나 물었더니 홍상수나 김기덕의 세계(“물론 둘도 서로 참 다르지만”)를 잊게 해줘서 그렇단다. 친구 말에 따르면 인간의 체액 냄새가 다 지워진 그 세계에서 우리는 새하얀 침대시트와 지금 살고 있는 파스타와 바에 앉아 주문한 하이볼을 본다. 그런 데서 벌어질 만한 이야기가 주는 매혹에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 젖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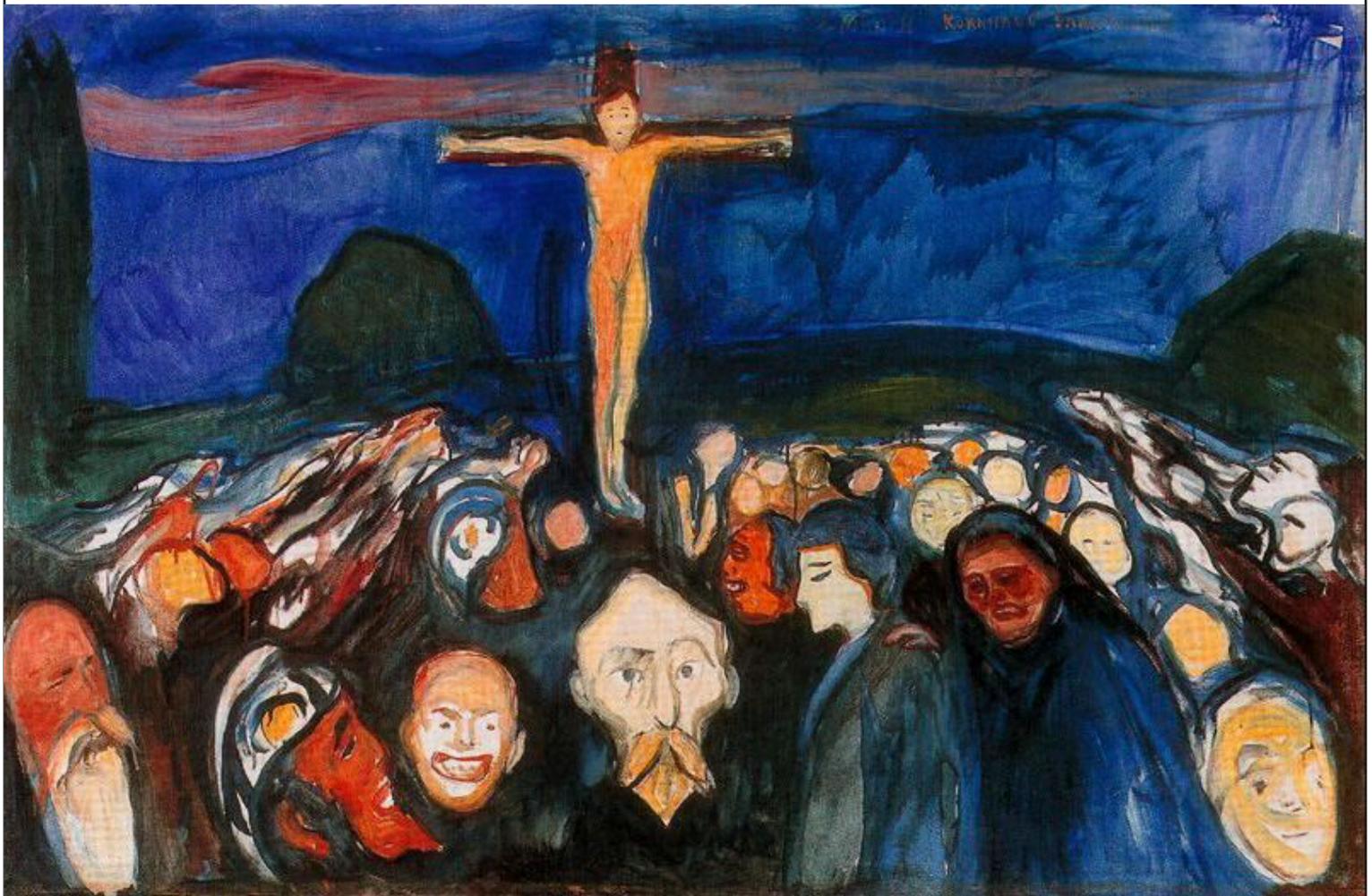
비평가들은 그런 하루키의 소설을 깃털처럼 가벼운 대중문학으로 분류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하루키가 구축한 세계가 동시대 작가와 독자들에게 끼친 영향이 너무 막강하다.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루키 단 한 명이다.

그의 신간 <여자가 없는 남자들>이 조만간 국내에 번역되어 나올 것이다. 이번에도 난 그 책을 읽겠지. 그리고 하루키 월드만이 보여주는 그 분위기에 흠뻑 취할 테지. 뭐 그거면 됐다.

(*이 글의 제목은 시인 오은의 시집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고통에 대한 긍정 / 이현옥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해서는 나는 아직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 그의 장편을 읽은 것이 없는 데다가, 그나마 본 것들도 <죽음의 집의 기록>이나 <가난한 사람들> 정도를 제외하고는 읽어가기조차 힘든 상태로 인내심을 가지고 '겨우 페이지를 넘겼다'고 할 수 있는 정도다. 특히 <지하생활자의 수기>나 <분신> 같은 작품들은 '왜 이런 작품을 썼을까'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뭘 보여주고 싶은 건지... 어디서부터 그를 이해해야 좋을지를 알 수 없으니, 거꾸로 내가 그의 작품을 읽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보자.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니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내게는 그의 작품들이 모두 찌질한 인간들이 내지르는 고통스런 비명처럼만 느껴지는데, 그걸 듣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골적인 비명으로 가득찬 작품들을 나는 여태껏 읽은 적이 없는 것 같다. 호소라면 또 몰라도 비명에 공감이라는 걸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 당황스럽다! 나는 여태 내가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이 꽤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왔으면서도, '비명'이라는 극단적인 경우에 대해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저 반사적으로 나도 모르게 회피함으로써 그 비명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비명이야말로 고통의 최극단이 아닌가. 그 비명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고통에 공감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는 그걸 들려주고 싶은 것일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어차피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를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 고통과 도스토예프스키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해보고 싶다.



도스토예프스키의 탁월함은 경험과 관찰에 의해서 얻은 인생과 인간 심정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지식을 그는 깊이 알고 있었으나 선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며 거기에는 순수하게 미적이며 창조적인 정신에서 알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처음으로 단지 인간의 법의 부당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덕률의 부당함을 터득하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서 좀 더 심오한 진실에 관한 문제에 골몰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죄와 벌의 요지를 이루게 될 윤리문제를 처음으로 보게 된다. 그 밖에 보다 미묘한 잠재의식의 영향도 있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심연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심연이 당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니체는 말했다.

(E.H. 카, <도스토예프스키 평전>)

벨린스키가 얘기하는 '선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도스토예프스키는 붓다나 스피노자가 완전히 이해했던 대로, 인간이란 존재가 애초에 그렇게 찌질함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운명지워져 있다는 것을, 즉 불안정한 존재의 조건을 우선 긍정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일찍부터 이해했다는 뜻일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가 어찌서 일반적인 선과 악이나 법의 경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윤리를 사유하고 구성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분명히 그는 고통에 대해서 남다른, 적어도 나와는 엄청 다른 태도-그게 경험과 사유를 통해 완성된 것인지 벨린스키의 말처럼 선험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둘의 조합인지는 모르겠지만-를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질병에 대해 결코 한탄하지 않았다. 게다가 병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일을 사실로 간주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도 좋을 것이다. 즉 운명이 그의 죄악과 위협의 모든 것에 대해 그랬듯이 그도 무한히 자신의 운명을 사랑함으로써 병 또한 사랑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작가의 직감이란 인간의 고통을 억제할 수 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고통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고통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극도로 위협하는 간질을 그의 예술에 내재한 최고의 신비로 바꾸어 놓았다.

(슈테판 츠바이크, <도스토예프스키를 쓰다>)

츠바이크의 이야기들은 이제 내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가 자신의 병을 사랑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모든 고통에 대해 그가 한탄하거나 슬퍼하거나 피하려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돈 문제에 관해서나, 평생 자신의 주변에 찰거머리같이 붙어 있던 의붓아들에 대해서나, 형수에 대해서나, 혹은 자신을 질시하고 폄하하던 문학계의 적들에 대해서도... 어찌면 그는 그들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너무나 이해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야기되는 고통을 비명을 내지르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츠바이크의 말처럼 고통에 귀기울임으로써, 그 고통을 이해하고 표현함으로써- 이해하는 자만이 분명히 표현할 수 있을테니까- 비명을 문학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닐지... 이것이 위대한 자와 찌질한 자의 차이인 것 같다.

그해 겨울에는 표도르 미하일로비치의 친분관계가 굉장히 넓어졌다. 도처에서 그를 무척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것은 그의 지성과 재능을 높이 평가한 탓이기도 했지만, 그가 온갖 고통에 공명하는 따뜻한 가슴을 지녔기 때문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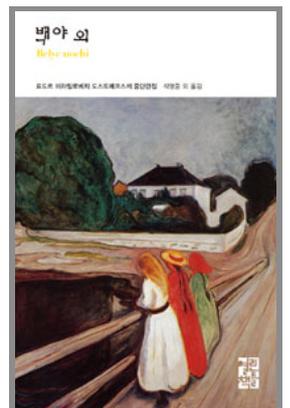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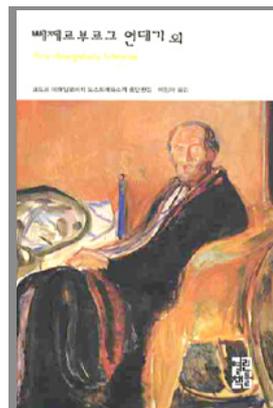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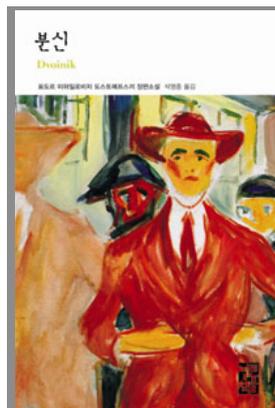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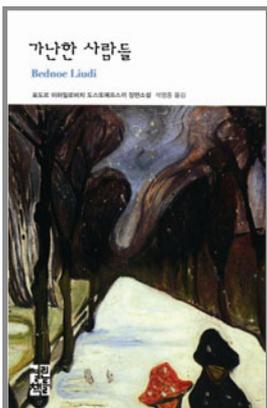
물론 나는 한 순간도 돈을 따는 것을 기대한 적은 없다. 희생해야만 할 100탈러가 너무나 아까웠지만 나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새로이 격렬한 감정을 체험하고 도박과 모험을 향한 자기 마음을 충족시키고 나면 표도르 미하일로비치는 안정된 마음으로 돌아올 것이고, 돈을 따겠다는 희망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확신하면서 새로운 힘으로 창작에 매진하여 2~3주 안에 잃은 돈을 모두 되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나 그리고리예브나 도스토예프스카야,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한 나날들>)

또 하나 내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의 아내 안나와 그의 고통과의 관계다. 나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안나의 이해 덕분에 자신의 고통과 화해할 수 있었고, 그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고통을 드러낼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하고 싶다. 내 경험상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은 찌질한 욕망으로 단단해지거나 비명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인간의 조건과 운명을 이해하는 직감과 고통에 귀기울이는 남다른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해도, 안나의 이해와 사랑이 없었다면, 아내라는 타자가 자신의 고통을 그토록 세심하게 알아봐주고 인정해주지 않았다면, 고통의 맨 밑바닥까지를 그토록 선명하게 들여다볼 용기와 힘을 낼 수 있었을까? 일그러지고 흉악한 고통의 극단까지를 완전히 긍정할 수 있었을까? 설혹 그렇다고는 해도 문학이라는 그 고되고 힘든 작업을 완수해낼 수 있었을까? 안나의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나는 그녀도 도스토예프스키만큼이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안나가 도스토예프스키의 고통을 그렇게나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 또한 자신의 운명을 잘 이해하고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고통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도스토예프스키를 제대로 만나보고 싶다.

도도 시즌 1에서
읽은 책들



5월, 환대를 생각함 / 채운

내가 공부하는 연구공간 '규문'은 효자동 주민센터 바로 맞은편에 있다. 주민센터 옆으로 난 넓은 길을 조금만 걸어가면 청와대 앞 광장이다. 그렇다 보니, 평일에도 '민간인 ㅁ 사복경찰 ㅁ'이라고 할 정도로 효자동 인근은 '철통 치안'을 자랑한다. 물론, 그게 시민을 위한 치안일 리 만무하지만, 아무튼 청와대에서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길은 꽤 근사한 산책로다. 하지만 광화문에서 집회라도 있는 날이면, 청와대로 난 모든 길들은 꼬리를 문 전경 버스들로 틈새 없이 가로막힌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근처는 주말마다 전시(戰時)를 방불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철벽 수비되었다.

지난 5월 9일 새벽,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비하면 세월호 사망자 300명은 많은 것도 아니라는 KBS 보도국장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던 유가족들이 바로 이곳,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도착했다. 유가족들이라고 해봐야 한 100명쯤 됐을까. 그런데 죽히 그 다섯 배는 될 법한 경찰인력과 차량들이 유가족을 둘러쌌다. 분노가 일더라. 그들이 무슨 폭도도 아니거늘, 하루 아침에 자식 잃고 기력 하나 없는 이들을 저렇게까지 천대(賤待)하다니.

공자는 상(喪)을 당한 사람을 보면 나이가 어려도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표했고, 그 앞을 지나칠 때도 조심스럽게 지나쳤다고 한다.(〈논어〉, '자한' 편) 공자가 유별나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도리(道理)이기 때문이다. 인간사가 복잡한 와중에 간단한 것이, 사실 마음을 나누는 게 별 게 없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은 먹었냐고 챙겨주고,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어봐 주고, 아픈 사람에게 널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게 전부다.

어쨌든 사건은 벌어졌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일어나 버렸고, 시간이 갈수록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 치자. 재난이야 늘 예고 없이 닥치고, 언제 한번이라도 거기에 인간의 탐욕이 개입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그러니 다 그럴 수 있다 치자. 문제는 그 다음이다. 살아남은 자들,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 산 자들은 또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누군가를 잃고 실의에 빠져 허우적대다가도 어쨌든 그런 나를 살게 하는 건 다른 누군가의 감축과 체온이 아니던가. 타자가 겪는 상실감 앞에서 나 자신이 변형됨을, 나의 삶이 타자의 삶에 휘말림을 느끼며 타자와 내가 하나의 인연조건 속에 놓여 있음을 사무치게 아는 것. 타자들의 삶이 내 삶을 이루는 조건임을 깨달을 수 있기에,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눈물 따위, 그게 무슨 소용인가. 울음의 굿판을 걸어치워라! 지금 막, 내가 사는 집 앞에 비탄으로 이지러진 자들이 도착했다. 집이 누추하면 누추한 대로, 우선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고 불 일이다. 그들에게 물 한 잔 내어주고,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해 이부자리를 펴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아파하는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혹여라도 그들이 내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지, 내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 하지는 않을지, 대문을 철망으로 퐁퐁 둘러치고 사나운 개들을 풀어놓는 짓.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자가 할 짓은 정말 아닌 거다.

그날 새벽, 거기에 환대(歡待)는 없었다. 타자의 갑작스런 방문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권력자의 무례(無禮)가 있었을 뿐. 그날, 나는 종일 이반 일리치가 말한 ‘환대’를 생각했다.

“나는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내 가슴속에 품을 것인지, 누구를 위해 나를 버릴 것인지, 누구와 얼굴을 맞대고 들여다 볼 것인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는 듯한 눈길로 내가 사랑스럽게 더듬는 그 얼굴, 그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존재는 하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 이 글은 <인권연대> 소식지에 실릴 글입니다.



이 사진은 5월 9일 규문 연구실에서 추가 찍은 것입니다.

공부한다면 이들처럼! 붓다와 그의 제자들 함께 하는 공부, 내 마음을 만나다 / 태람

만일 어떤 도적이 와서 너를 붙잡아 톱으로 네 몸을 쪼갤 때, 너희들이 도적에게 나쁜 생각을 일으키고 나쁜 말을 한다면 저절로 장애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설사 톱으로 네 몸을 쪼갬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에게 나쁜 마음을 일으켜 변하거나 또는 나쁜 말을 하여 스스로 장애를 만들지 말라. 그 사람에게 마땅히 자애로운 마음을 내어 원한도 유감도 품지 말며, 사방 경계에 대하여 자애로운 마음을 바로 받고 두루 갖추어서 머물기를 마땅히 배워야 한다. (雜阿含經, <擧罪經>)

존자 사리불이 붓다에게 묻는다. 남의 죄를 들추어내고자 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느냐고. 이에 대해 붓다는 다섯 가지 법을 갖추면 남의 죄를 들추어낼 수 있다고 가르친다. 다섯 가지 법이란 진실, 적당한 때, 이치로 유익하게 함, 부드러움, 자애로운 마음이다. 이 다섯 가지로 죄를 들추어내는 자기의 마음을 우선 살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죄가 드러난 자는? 붓다는 그 또한 다섯 가지 법으로 마음을 편안히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죄를 듣는 자는 상대가 그것을 어디서 알았건 사실인 것을 거짓이라 하지 말며, 적당한 때를 적당치 않은 때라 하지 말며, 올바른 이치로 유익하게 하는 것을 잘못된 이치로 유익하게 한다고 하지 말며, 부드러운 것을 거칠고 난삽하다 하지 말며, 자애로운 마음을 성낸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것도, 싫은 소리를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다. 싫은 소리는 보통 분노가 치미는 상황에서 터져 나오고, 싫은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나, 때와 장소 등을 문제 삼으며 분노한다. 누군가 어떤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몇 번이고 그 일을 곱씹으며 평생토록 그를 비방하려 든다. 그렇게 죄를 들추는 사람이나 죄가 드러난 사람이나 마음을 다치게 되는 건 매한가지다.

붓다와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다. 서로를 힐책하며 날뛰고,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사이가 멀어져 뒤도 안 돌아보고 공동체를 뛰쳐나가는 비구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사이가 틀어지는 건 보통 사소한 문제들 때문이고, 특히 말 때문에 일어나는 사단이 많았다. 말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붙들어 번뇌는 짓는 나의 마음때문에 말은 물리적 힘을 갖는 것처럼 느껴진다. 황당하다고 생각했던 말들일수록,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들일수록 잘 잊히지 않는다.

핵심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어떤 마음으로 들추어내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하는 데 있다. 사리불은 만약 제 죄를 들추어낸 사람 중에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미워하는 대신 제 마음을 스스로 편안하게 가지겠다고 말한다. 마음에 장애를 만드는 것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상대가 아니라 상대의 말에 집착하는 나다. 사리불은 붓다에게 들었던 엄청난 비유를 생각한다.

내 몸을 톱으로 쪼개는 도적에 대해서도 나쁜 생각을 일으키거나 나쁜 말을 하여 스스로 장애를 만들지 말라고 했던 붓다의 가르침. 붓다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내어 원한도 유감도 품지 말라고 한다. 자애로운 마음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붓다와 그의 제자들의 일상이 말해주는 건 번뇌의 장이 바로 공부의 장이라는 사실이다.

이달의 선물

영수쌤 커피공방의 각종 커피콩 한아름~

아침엔 멕시코 토파치오, 흠내음 가득한 오후엔 르완다, 씹쓸하고 묵직한 저녁엔 케냐AA

정아 할머니님의 전라도 전통 갓김치
사이다 보다 특 쏘는 맛이 일품!!



은남쌤 완두콩

삶아는 먹어봤나, 완두콩~

그리고, special thanks to 쿤우!! 보라, 이 멋드러진 홈페이지!!

새로 단장한 규문 홈페이지에 대한 각계 반응은~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홈페이지! 단정하고 섬세한 게 쿤우쌤을 닮았어요!!”

★★★★★ 영화계 혜선

“규문 홈페이지가 새 옷을! 그것도 섬세한 디자이너의 맞춤옷을 입고 환골탈태를!
매력적인 자태로 새 인물들을 유혹할 수 있기를!!”

★★★★★ 홈페이지 기술자 제리

“깜놀! 또 깜놀!!”

★★★★★ 기업인 혜경쌤

“기대 이상의 홈페이지!”

★★★★ 클라이언트

“우리 홈페이지가 제일 예뻐요~”

★★★★★ 불교계 태람(불교N 반장)

“디자인에도 격이 있다!”

별점 거부 전직 규문 홈페이지 디자이너 윤차장

